

심청, 몽룡, 흥부, 흥길동..., 새 옷 입고 나타나 외치는 '민중의 힘'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전2권) 홍순명 지음 | 부키 | 각권 220쪽 내외 | 값 각권 6,800원



풀무학교는 이미 45년 전 대안학교의 한 형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인교육 모델 학교'로 자리잡았다. '더불어 사는 평민'을 키우자는 학교의 교육 목표를 말해주듯 학교에는 그 흔한 '담'이 없다. 대신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존재할 뿐이다.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 온 홍순명(66) 씨는 지난해 정년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 곁을 지키며 그들과 대화한다. 그가 쓴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역시 홍씨가 그들에게 선물하는 이야기 모음집이다. 익히 알고 있어서 "지루할 법"한 전래 이야기 다섯 편을 요즘 실상에 맞게 고쳐 쓰면서 우화적으로 현실

을 비판한 그는 이 책 속에 교육적 대안과 읽는 재미를 골고루 담아냈다.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다보니 진학 교육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읽을 책을 추천할 기회가 많아지더군요. 하지만 막상 책을 찾아보면 아주 예전 책이나 외국 도서가 대부분이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본래 옛날이야기도 이분이 존재하니까 제가 옛 이야기의 이본을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지요."

홍씨는 심청이와 춘향이, 흥길동과 흥부, 선녀와 나무꾼에게 새 옷을 입혔다. 주인공의 이름과 심성은 그대로이되 이들을 둘러싼 사회상, 앞에 놓인 사건 등이 모두 새로워진 것이다. 특히, 대안학교 교사

와 아이들이 함께 읽는 글이니 만큼 이야기 곳곳에서는 '풀무학교'가 지향하는 특별한 교육의 의미가 짙게 배어났다.

"생산과 농업, 생명의 소중함 등에 관해서 동료들은 물론이고 학생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안학교'는 학교를 곧 '생활공동체'로 부르거든요. 여기 담긴 글에도 이런 의식이 담겨 있지요. 기존 이야기는 가족 이기주의나 당파를 초월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극복하려고 '전체'를 중시하는 관념들을 첨가했죠."

그는 특별하게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쟁 중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원자격 검정고시를 통해 교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권 교육에서 교사생활을 하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권위주의적이고 군대식인 교육관행과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을 어쩔 수 없이 답습해야만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실망이 늘어갔다. 그러다 그와 뜻이 맞는 풀무학교에 온 것은 군대 제대 후의 일이다.

"첫 월급을 받아 하숙비 내고 치약 하나 사니까 한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래 생활이 나아진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 일곱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연금도 한 25만 원 받고 있는데 노후 걱정이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생산의 기초가 되는 땅을 가꾸고 유기농업을 전수하며, 학력 지역 종교 남녀 장애자 비장애자 구분 없이 학생의 독자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는 풀무학교만큼 홍씨와 잘 어울리는 곳은 없었다. 그는 아

“...이들은 우리문화의 기초로서 노동을 하면서 삶의 애환을 풀어가고,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나간 사람들입니다...지위가 높지 않거나 재산이 많지 않고 사회 진출의 기회가 없는 사람만이 평민은 아닙니다....그들은 자각한 형태의 한 사람으로 자기 개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격체이지요....”



이들과,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마냥 즐거웠다. 다섯 편의 이야기를 아우르는 중심도 ‘더불어’ 사는 위대한 평민들이다. 전래 이야기의 열개를 살리면서 사회상과 인물의 환경을 변화시킨 이야기들 중 <새 심청전>에는 아버지의 눈 때문이 아니라 피정복민이라는 이유로 백제 군인들에게 팔려가지만 사람들을 용서하는 심청이가 있다. 본래 이야기에서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몽룡은 과거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인물로 ‘변신’ 한다. 그는 조선 말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자신의 임무라는 걸 깨닫고 평민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다. 홍씨는 이런 인물들과 그들을 둘러싼 사건을 통해 현대사의 중심을 관통한 군사문화를 비판하고, 민중 삶의 가치를 되새긴다. 제목에 쓰인 ‘돌풀’ 역시 ‘민초’라는 의미의 ‘민중’, 즉 ‘평민’을 뜻한다.

“이들은 우리문화의 기초로서 노동을 하면서 삶의 애환을 풀어가고,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지위가 높지 않거나 재산이 많지 않고 사회 진출의 기회가 없는 사람만이 평민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각한 형태의 한 사람으로 자기 개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격체이지요.”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평민은 어떻게 태어날까. <새 흥부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두아래 학교’의 교육방식을 보자.

가치나 의미, 지식, 정서를 고루 갖추자는 교육 이념을 가진 이 학교에는 풀무학교 처럼 담이 없다. 마을과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공부도 하지만 호미나 팽이를 들고 일을 배운다. 생산에 참여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실감하는 그들은 기계를 조작하되 그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금의 인문학교는 노작勞作을 전혀 하지 않죠. 노작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꽃을 가꾸고, 컴퓨터와 기계를 조작하고, 요리를 하는 것이죠. 실업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교양 교육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물론 실업학교, 인문학교 모두 필요하죠. 인문교육은 물론이고 생활적인 교육이 기초가 되면서 각 학교의 성격을 유지해야죠.”

그는 풀무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교육방식의 가치를 실감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밝고 명랑했다. “풀무학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이라 말하는 졸업생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은 ‘편견’과 ‘벽’을 버리고 생활한다. 그 중에는 공부를 못하지만 노작을 잘해 노작시간에 영웅이 되는 아이도 있고, 의기소침해 있다가도 친구들과 단합해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신이 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만능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개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고, 그 개성을 찾아 스스로 발전시키려 한다. 홍씨는 이 아이들에게 ‘평화세대’라는 별명을 붙여 줄 날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주인공들 앞에는 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위기와 분열을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극복의지 속에 도시와 농촌, 종교, 지역 등을 포함한 편견과 오해 등을 극복하지는 뜻도 담았습니다. 다른 바람보다도 아이들이 ‘평화세대’가 되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장간에서 불을 피울 때 이용하는 기구를 의미하는 ‘풀무’는 좋은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첫째는 대장간에서 물건을 하나씩 만들어내듯 사람들 각각의 개성을 찾아주자는 ‘교육’의 의미, 둘째는 사회에 나가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 셋째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쇠를 달구어 연장을 만들어내듯 보이지 않는 정신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홍순명 씨는 이 책이 ‘풀무’ 같은 의미로 남길 바라고 있다. 훗날 지금의 학생들이 이 책을 불씨 삼아 그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이분을 완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